

# 우리나라 영상분야 자원관리 현황 및 개선전략

## Archiving Situation and Improvement Strategy of Video Resources in Korea

김선애(Sun-Ae Kim)\*

### 【초 록】

영상산업이 국가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자원 확보를 통한 영상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영상자원 확충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의 영상자원 확보는 한국영상자료원의 한국영화에 대한 아카이빙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상분야 자원확충을 통해 영상산업 및 학술연구 지원역량을 강화하여 영상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영상분야 자원확충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상자원의 확충방안으로 제시한 방법은 크게 영상기록물과 자료적 가치가 있는 파생기록물 등을 위한 아카이빙을 담당할 기관과 영상분야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학술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영상자료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한국영상자료원의 역할조정과 방송자료 아카이빙의 일원화 혹은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 【키워드】

영상자원, 영화자료, 영화아카이빙, 방송자료아카이빙

### 【Abstract】

Visual industry can contribute to this national industry is a high-value industry. Nevertheless, video resources expansion strategy at national level is lacking. There have been sever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 conducting film archiving and related activities in Korea. Korean Film Archive(KOFA) is the only institution whose status is protected by the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strategic plan which is able to support the video industry and academic research. For methods to strengthen video resources, role adjustment of KOFA conducting film archiving and unification or integration

of collection system for archiving broadcast materials were proposed.

### 【Keywords】

Video Resources, Film Resources, Film Archiving, Broadcasting Archiving

## 1. 서론

국내의 영상산업은 2003~2007년 동안 연평균 7.9%의 매출액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한류의 영향으로 2002~2006년 동안 연평균 49.6%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영상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투자에 비해 그 수익이 매우 높다. 영화의 경우 초기 제작비용은 높을 수 있지만 제작된 후 복제 비용이 거의 없어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 영상산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제고되고 국가 산업적 기반으로서의 발전이 기대되면서 영상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영상산업이 국가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자원 확보를 통한 영상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영상자원 확충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의 영상자원 확보는 한국영상자료원의 한국영화에 대한 아카이빙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영화의 국가자원화를 비전으로 국내에서 개봉되는 영화의 필름과 시나리오를 납본 받아 보존하고 있다. 방송자료에 대한 아카이브는 디지털 방송시대와 맞물려 1990년 이후의 방송자료만을 개별 방송국에서 소장하고 있다. 방송사에서 개별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 방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imsa@ks.ac.kr)

논문접수일자 : 2009년 10월 27일 논문심사일자 : 2009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자 : 2009년 12월 5일

송사간에는 일부자료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 대중의 접근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활용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영상분야 자원관리 현황을 고찰하고 영상자원 확보를 위한 개선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영상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영상분야 자원확충을 통해 영상산업 및 학술연구의 지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의 영상자원 확충 실태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외국의 영상자원 관리현황 분석을 통해, 영상자원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 2. 영상자원의 특성 및 유형

영상자원은 그것을 생산해낸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한 사회와 공동체가 직면한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과 그 구성원들의 내밀한 속사정을 담아내는 사회적인 기록으로서의 고유한 맥락도 함께 지니고 있다. 영상작품은 한 사회와 시대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영상창작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탄생하게 된 맥락을 이해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작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증거로서 본래의 맥락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보존될 필요가 대두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영화, 예술 등과 같이 작가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진 창작물을 수집하는 것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영역으로, 작품생산과 유통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록물의 수집은 기록보존소의 영역으로, 작품의 배포와 유통과정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간행물의 수집은 도서관의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지만 창작물이 가지는 사회적 기록으로서의 맥락을 총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과 기록보존소, 박물관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보존기관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사례들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역할을 혼재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가장 많이 목격된다.

영상분야 자료는 일반적인 주제 분야와 달리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한다. 일반적인 주제 분야에서의 지적 생산물은 도서와 그 밖의 출판물이라는 형태로 자료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반면, 영상분야의 경우에는

도서와 출판물 이외에도 유의미한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자료들이 다량으로 발생한다. 영상분야에서 도서와 출판물은 오히려 창작물에 대한 비평, 이론 등에서 생산되는 부분적인 지적 생산물에 지나지 않으며, 창작물과는 구분되는 2차적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영상분야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 것은 창작물 그 자체 즉, 영상기록물이 해당될 것이다. 작품의 생산과정에는 도서와 출판물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함께 생산되고 소용된다. 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하는 포스터와 팸플릿 등의 홍보자료, 촬영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대본, 제작노트, 촬영일지, 그리고 작품생산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해 제작된 동영상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이 생산되고 활용된다. 이러한 유형의 자료와는 별개로 작품이나 기록의 의미와 맥락을 보다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창작의 주체가 되는 창작자(총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시나리오작가 등)나 영화협회, 세계 각국의 영화제, 영화단체 등에 관한 정보, 영화가 제작되어 유통되고 있는 영화산업에 대한 정보들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그 시대의 문화적인 트렌드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화·사회적인 지표로서의 영화제작, 유통 전반에 관한 통계자료,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 전반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정리할 필요가 발생한다. 영상분야 관련종사자, 영상분야 단체, 영상산업 제작 및 유통실태, 영상산업 현황 등에 관한 정보는 무형의 정보들 가운데에서 유의미한 항목들을 추출해서 유형의 정보로 가공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분야 자원의 범위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좁은 의미로는 영상기록물, 즉 영화, 방송 등의 동영상자료만을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영상산업과 관련되어 영상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자료로 확대하여 볼 수도 있다. 영상분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영상자원의 범위 또한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자원의 범위를 영상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자료로 이해하지만, 구체적으로 영화와 방송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영화와 방송으로 영상자원의 의미를 한정할 경우, 영상자원의 유형은 크게 기록물과 출판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록물은 영상기록물과 파생기록물 혹은 1차 기록물과 2차 기록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영상분야 자료의 유형

| 성격  | 구분                | 내용  |
|-----|-------------------|---|
| 기록물 | 영상기록물<br>(1차 기록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름, VHS, DVD 및 그 밖의 유형물 등으로 제작·유통되는 영화</li> <li>• 필름, VHS, DVD 및 그 밖의 유형물 등으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li> <li>• 필름, VHS, DVD 및 그 밖의 유형물 등으로 제작된 공공영상물</li> </ul>   |
|     | 파생기록물<br>(2차 기록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향자료: 오디오테이프의 형태로 제작된 동영상 이전의 자료 혹은 인터뷰 자료 등</li> <li>• 창작물의 모체가 되는 방송대본 및 영화시나리오</li> <li>• 보도자료(Clipings files): 영화관련 잡지, 저널 등에 포함된 영화리뷰, 각종 인터뷰, 기사, 캡플릿 및 기타자료</li> <li>• 제작자, 경영자 매뉴얼(Exhibitor Manuals): 방송·영화감독의 촬영일지, 제작자의 작업노트, 제작자의 작업일지, 방송·영화제작사의 마케팅 노하우 등에 관한 자료</li> <li>• 스틸(Stills): 영화제작과 마케팅 차원에서 파생된 영화나 영화배우에 관련된 스틸사진이나 광고사진</li> <li>• 포스터(Posters): 극장에서 상영된 혹은 영화제 등에서 개봉된 모든 영화에 대한 대형 포스터, 홍보용 포스터, 해외홍보용 포스터 등</li> </ul>  |
| 출판물 | 일반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도서(Books):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영화·영화관련 자료로서 영화의 역사, 이론, 그리고 비평에 관한 자료, 배우, 감독, 시나리오작가 등에 관련된 자료, 영화의 장르, 주제, 제작 등에 관련된 자료, 방송정책연구에 관한 자료, 영상산업에 관련된 경제자료, 기타 영상산업에 관련된 인문학 자료 등에 관련된 참고자료, 전문서적, 대중적인 전기서, 출판된 대본자료, 영상산업에 관련된 경제자료 등</li> <li>• 연속간행물(periodicals): 학술적인 자료, 대중적인 자료, 그리고 산업 및 기타 자료 등을 포함</li> <li>• 영화제 카탈로그(Film Festival Catalogs): 전 세계에서 열리는 각종 영화제(일반영화제, 독립영화제, 단편영화제, 다큐영화제, 애니메이션 등)의 카탈로그</li> <li>• 기타 자료: 구매나 납본을 통해 수집이 불가능한 각종 회색문헌(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컨퍼런스 자료 등)</li> </ul> |

### 3. 국내외 영상분야 자원관리 현황

#### 3.1 국내의 영상기록물 수집 및 관리현황

국내에서 영화관련 기록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영상자료원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1974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던 ‘한국필름보관소’가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영상자료원으로 설립된 것은 2002년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임무는 영화필름을 비롯한 비필름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류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것과 수집된 자료들의 원본의 상태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이다.

1990년 이후 제정된 필름의무제출제도 덕택에 한국영화 대부분을 수집하고 있지만 70년대 이전의 자료는 한국영화제작편수 대비 보유량이 40%를 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영상자료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내에 출시된 영화관련 DVD 8,500여점, VHS 3,200여점, 도서 3,500여권, 논문 1,700여점, 시나리오 13,500여점 등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한국영화의 국가

자원화를 목적으로 한국영화의 망라적 수집, 수집된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한국영상자료원은 필름의무제출제도에 의해 한국영화를 주요수집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요영화제 수상작 혹은 출품작, 세계 우수 영화제 출품작, 수상작, 제3세계의 우수 영화,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학생들의 졸업 작품 등 영화 관련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를 거의 수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마련도 어렵다.

영상기록 특히, 영화는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기록매체가 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영상기록이 존재하게 된 배경, 예를 들면 제작회의, 초기 시나리오, 콘티 등이 함께 있어야 영화사 연구에 있어 혹은 영화를 공부하고자 하는 영화학도들에게 보다 충실한 완성된 기록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결과물인 필름과 대본이기 때문에 여타의 자료는 수집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화가 만들어지기전의 계획단계, 영화제작이 시작되는 단계, 영화제작과정 그리고 영화제작이 끝난 후 상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국내의 영화자료에 대한 수집은 한국영상자료

원의 역할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영화의 국가자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의 역할 또한 한국영화의 수집, 원본보존 및 관리에 국한되어 있다. 결국 국내제작 영화 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영상자료의 수집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자료의 수집은 개별 방송국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sup>1)</sup>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1998년에 설립된 방송산업영상진흥원은 첨단 디지털시스템을 이용하여 문화유산으로서 방송프로그램을 충실히 보존하고, 디지털 영상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존 자료의 수집범위는 보관소에 자료를 보관하기를 원하는 방송사의 방송영상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방송영상물의 일부만을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전량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순수 아카이브 수행기관

으로 국가문화유산으로서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별기준은 장르에 따라 주제에 따라 영상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선별기준에 의해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현황은 아날로그 자료 20,516시간, 디지털 자료는 6,776편에 대해 1,626시간이다.

개별 방송사들도 자사의 방송국에서 방영된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들 방송국에서 자료를 보관하는 주된 기능은 제작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며, 부수적 기능으로 기록물의 보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영상자료 보존정책, 보존현황 등을 보면 <표 3>과 같다.

개별 방송사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면서 DAS(Digital Archiving System)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제작, 송출, 저장에 관련된 워크플로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시스템구축을 통해 방송자료 아카이빙 체제가 자

<표 2>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영구보존자료 선별기준

| 장르별 수집 보관 자료  | 주제별, 아이템별 수집 보관 자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대에 대한 기록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영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 보도물, 시사, 토론물 등</li> </ul> </li> <li>• 종합문화재로서(Cultural treasure)의 개성 있는 영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 지역문화, 문화예술, 국가적 이벤트 등</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자료로서 가치 있는 영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의 수상작, 실험성이 뛰어난 프로그램 등</li> </ul> </li> <li>• 방송미디어부분의 연구 자료로서의 영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대비방송, 북한자료, 시청률 등의 시대의화제작</li> </ul> </li> </ul> |

<표 3> 지상파 방송 3사의 영상자료 보존정책 및 보유 현황

| 구분          | KBS  | MBC   | SBS  |
|-------------|--|---|--|
| 자료보존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대 말부터 프로그램 전량을 보관하기 시작</li> <li>• 모든 자료는 영구보존하는 것을 원칙</li> <li>• 지상파와 위성으로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0년대부터 방송영상아카이브 설치, 운영</li> <li>• 방송된 모든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원칙</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li> <li>• 미 방송프로그램 중 선택적으로 보존</li> </ul>             |
| 디지털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방송환경으로 변화된 후 자료는 전량 디지털 자료로 보관</li> <li>• 이전 자료는 디지털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방송환경으로 변화된 후 자료는 전량 디지털 자료로 보관</li> <li>• 이전 자료는 디지털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방송환경으로 변화된 후 자료는 전량 디지털 자료로 보존</li> </ul>                     |
| 자료보유량/연간증가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만여 개 프로그램</li> <li>• 연간증가량: 1만 5-6천여 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여만 개 프로그램</li> <li>• 연간증가량: 2만여 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8만여 개 프로그램</li> <li>• 연간증가량: 1만 2-3천여 개</li> </ul>               |
| 이용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사 임직원</li> <li>• 관련기관의 이용은 제한적으로 가능</li> <li>• 일반인 금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사 임직원</li> <li>• 관련기관의 이용은 제한적으로 가능</li> <li>• 일반인 금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사 임직원</li> <li>• 관련기관의 이용은 제한적으로 가능</li> <li>• 일반인 금지</li> </ul> |

1) 2009년 5월 7일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1조에 의거하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을 하나로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였다.

연스럽게 구축되었다.

방송사에서는 방송영상자료가 문화유산이며, 보존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시 방송제작지원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방송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지만 제작중심으로 움직이는 방송사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여력도 유통할 시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방송사끼리의 방송기록에 대한 교류는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인에게는 방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 이는 방송사별로 방송기록을 보관하면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기록의 체계적 보관을 통한 콘텐츠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방송영상자료의 통합 및 공공이용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 3.2 프랑스의 영상자원 관리 현황

프랑스는 영상자원의 수집 및 보존과 관련하여 크게 3개의 기관이 서로 협력하며 공존하고 있다. 프랑스 영화의 국가자원화를 위해 영화필름의 수집, 복원, 보존의 역할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프랑스 필름아카이브센터(Archives Françaises du film)와 국가공공기관으로서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및 음향, 영상자료의 보존과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제작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시청각연구소, INA(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그리고 영상·영화산업의 발전과 관련종사자들을 위한 학술연구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화관련 전문도서관인 Bibliothèque du Film(BIFI)이다.

#### 3.2.1 Archives Françaises du film

프랑스의 필름 아카이브센터(Les Archives Françaises du film)는 영화의 국가자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기관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의 필름납본제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필름납본제도는 처음에는 국립도서관(Bnf)에 의해 시행되었으나 제출한 필름의 적절한 보관에 대한 기술적 실제적인 문제점들이 대두됨에 따라 1984년부터 이원화 체제로 변경되었다. 즉, 국립도서관(BnF)에서는 행정적인 제출만이

이루어지고 필름의 관리 및 보존은 전문적인 필름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영화센터의 프랑스 필름 아카이브에서 전담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1992년 필름제출의무제도로 개정되면서, 제출대상이 사진화학적 재질로 구성된 필름으로 만들어진 모든 장, 단편의 영상제작물, 프랑스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와 여섯 벌 이상의 프린트를 만들어 프랑스 내에서 배급·상영하는 외국영화 그리고 여섯 벌 이상의 프린트로 복사하여 특정인들 대상으로 상영하는 광고 영화 및 공·사립 기관에서 홍보와 교육을 목적으로 주문·제작되는 영화로까지 확대되었다. 극장용 장편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예고편, 선전광고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 수입영화의 경우에는 프랑스어로 더빙했거나 자막이 들어 있는 필름도 제출하여야 한다.

#### 3.2.2 INA(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프랑스 국립시청각연구소로서 영상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관, 영상 리소스를 위한 새로운 제작 기술의 연구·교육·보급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프랑스 최대의 영상자료보존기관이다. INA는 상업적 성격의 국가 공공기관으로,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및 음향, 영상자료를 보존하고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INA 산하의 Inathèque는 프랑스의 '방송 프로그램 납본제'를 규정한 방송법<sup>2)</sup>을 근거로 공·민영의 모든 방송사(단, 지역 민영 라디오와 위성방송 제외)의 재방영 프로그램과 뉴스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제작·방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납본을 받아 소장 자료에 대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 〈Inathèque 납본 대상 프로그램〉

- 프로그램 보존 부문: 공공 방송이 제작한 프로그램 가운데,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것(전체의 40% 정도)
- 의무 기탁 부문: 프랑스 국내 지상파 방송국(TF1, France2, France3, Arte, Canal Plus, La Cinquieme, M6)의 7개 방송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 INA의 전신인 ORTF에서, 라디오는 1933년, 뉴스 영화는 1940년,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1949년부터 보존이 시작되어 연 87만 시간에 이르는 오디오 비주얼 작품이 축적·보존되어 있다.

2) 1992년 6월 20일 통과한 법으로 주요내용은 방송프로그램 양도법과 의무기탁법이다. ① 방송 프로그램의 양도법: 공공 방송국은 방송 후 3년이 지난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INA에 양도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프랑스 영상 자산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INA가 소재와 프로그램의 판매, 혹은 그것들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제작 등을 한다). ② 의무기탁법: INA는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보존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국은 제작한 프로그램을 INA에 기탁할 의무가 있다.

-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보존 수는 프로그램 보존 부문에서 40만 시간
- 의무 기탁 부문에서는 연간 1만 8,700시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기탁

### 3.2.3 Bibliothèque du Film(BIFI)

영상·영화산업의 발전과 관련종사자들을 위한 학술연구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화관련 전문도서관이다. BIFI는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영화필름을 아카이빙 하는 기능보다는 전문도서관으로서 다양한 매체의 영화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 종사자나 창작자, 연구자 혹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영화·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영화자료의 국가자원화를 위한 아카이빙을 위한 기관과 영화 발전을 위한 공공적 이용과 연구기능을 지원하는 기관이 긴밀하게 연계된 상황에서 공존하고 있다.

BIFI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일반도서, 보도자료, 사진, 포스터, 그림, 비디오 혹은 DVD 등이며, 매체에 상관없이, 국가를 초월하여 영화와 관련된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다. 소장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도서가 21,000권, 연속간행물 415종이며, 특히 그림 및 사진자료의 수

집량이 511,300건으로 괄목할 만하다. BIFI는 영화발전을 위한 중요과제를 선정하여 DB도 구축하고 있다(표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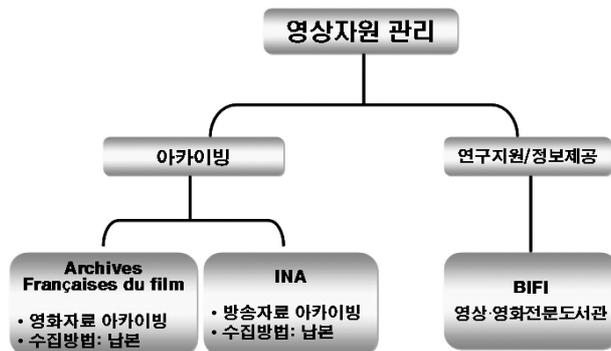
프랑스의 영상자원 관리현황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기록보존의 성격을 지닌 두 기관이 영화와 방송에 관련된 모든 영상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빙을 담당하고 있고, 이와 함께 영상·영화 관련종사자들의 학술연구지원을 강화하여 창작의욕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영상관련 전문도서관을 아카이빙기관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 3.3 영국의 영상자원 관리현황

영국도 영상자원의 수집·보존과 관련하여 여러 기관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달리 영국은 국립영화원(BFI: British Film Institute)이 영화에 관한 통합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관에는 영화 및 방송자료의 아카이빙을 위한 국립 필름·텔레비전아카이브(National Film & Television Archive)기관과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전문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BFI의 National Library가 있다. 그 외에도 방송자료 아카이브기관인 BBC 방송협회의 아카이브가 있다.

<표 4> BIFI(Bibliothèques du Film) 소장자료 현황

| 구분             | 수량              | 비고           |
|----------------|-----------------|--------------|
| 일반도서(Books)    | 21,000권         |              |
| 연속간행물(Serials) | 415종            | 발행 중단된 자료 포함 |
| 비디오, DVD       | 51,000건         | 1994년 이후     |
| 보도자료           | 18,800건         | 디지털화하여 소장    |
| 포스터            | 20,000건         |              |
| 그림, 사진자료       | 511,300건        |              |
| DB구축           | 73개 과제, 15,000건 |              |



<그림 1> 프랑스의 영상자원 수집·관리현황

3.3.1 British Film Institute(BFI)의 National Library  
영국의 BFI는 영화의 배포, 배급, 영화관련 행사, 영화 생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클리어링하우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33년에 설립되었다. BFI의 국립도서관은 영국의 영화·영상산업을 위한 영화자료 아카이빙의 역할보다는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종사자들의 학술연구지원 및 정보제공서비스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BFI의 국립도서관은 영상관련 연구자, 창작자, 학생 등 관련종사자들의 연구활동 혹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소장자료는 도서, 연속간행물, 연구보고서, 디렉터리 및 연감자료, 신문보도자료, 페스티벌 카탈로그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특수 장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영화와 방송작품 중에서 훌륭한 작품에 관련된 개인 데이터베이스 및 작품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 및 작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뿐만 아니라 이 도서관에서는 각종 영화제와 관련된 보도자료, 프로그램 및 카탈로그, 광고매체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색인 DB도 구축하고 있다(표 5 참조).

3.3.2 National Film & Television Archive(NFTVA)  
국립필름·텔레비전아카이브(NFTVA)는 BFI 소속의 독립기관이다. NFTVA의 목적은 영화와 방송의 예술과 역사의 실례로서 혹은 20세기의 다큐멘터리 기록으로서 지속적인 가치를 가지는 영상물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영구적으로 활용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1894년부터 오늘날까지 제작된 대략 350,000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장·단편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뉴스영화, 방송 프로그램, 아마추어 필름과 비디오 등이다.

자료들은 주로 기증 방식으로 수집되거나 독립 방송

물의 경우는 방송사들의 직접적인 기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극영화는 영국 내에서 제작, 상영 혹은 보급되는 극영화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국과 영국 관련 제작물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해외로부터 중요하고 인기 있는 필름들 역시 참고 목적으로 가능한 한 수집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극영화와 비디오 작품, 초기의 필름들, 전문가 컬렉션, 홈무비 그리고 정부 기관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록 필름들도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TV 프로그램 수집은 1950년대 중반에 시작하였으며, 수집은 TV방송국들의 방송을 직접 수신하여 녹화하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BBC 방송국의 프로그램은 NFTVA에서 보존을 위해 수집하거나 녹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BBC 자체 내에 자료보관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3.3.3 BBC 아카이브

BBC Archive는 1920년대를 배경으로 Sound Archive와 1930년대 텔레비전 아카이브로 성장해오면서 현재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방송 아카이브이다(오광호 2007).

BBC 디지털 아카이브의 목표는 첫째는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쉬운 검색을 통한 빠른 접근점을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카이브 및 아카이브 사용자들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며, 셋째는 소비자들을 향한 새로운 채널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고, 넷째는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며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한 자료를 쉽게 찾도록 해주는 것과 이용에 따른 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표 6 참조).

BBC는 2003년에 지적 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시민들의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 자료의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Creative Archive)”란 이름의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이를 통해

<표 5> BFI National Library 소장자료현황

| 구분             | 수량         | 비고          |
|----------------|------------|-------------|
| 일반도서(Books)    | 51,000권    |             |
| 연속간행물(Serials) | 6,000종     | 발행중단된 자료 포함 |
| 영화, 방송작품       | 810,000건   | 국내, 국제      |
| 오디오테잎          | 400건의 인터뷰  | 유명인을 대상     |
| 특수장서(DB구축)     | 500건       |             |
| 대본             | 20,000     |             |
| 보도자료           | 2,000,000건 |             |

〈표 6〉 BBC Information & Archive 운영체제(2001년)

| 구분  | 보관수량                        |   |
|---|-----------------------------|---|
| 방송 아카이브(Broadcast Archive)                | 텔레비전 아카이브(프로그램)             | • 540,000 film cans<br>• 586,000 비디오테이프(약 22,000시간 분량)    |
|   | 텔레비전 아카이브(국내외 뉴스)           | • 1948년 이후의 뉴스자료  |
|   | 음성 아카이브(Sound Archive)      | • 50만개 이상의 기록   |
|   | 사진 아카이브(Picture Archive)    | • 흑백사진 500만장  |
| 뮤직 라이브러리(Music Library)                   | 상업적 기록물(Commercial Records) | • 약 125만 기록물 소장<br>• 약 300만 명의 공연 실황이 담긴 CD 및 TAPE        |
|   | 인쇄 기록물(Printed)             | • 제작사의 주요 사건을 포함한 약 6백만 권의 음악관련 기록물                       |
| 문서 아카이브(Document Archive)                 |                             | • 1922년~현재까지 약 550,000file(dir 21,316feet) 소장             |
| 정보 연구 라이브러리(Information Research Library) |                             | • 15만 장서에 기반을 둔 도서관 서비스<br>• 뉴스 및 정기간행물의 2,300만건 온라인 정보제공 |

라디오 및 TV 방송 프로그램을 담은 수천 개의 자료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대중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제도는 상업적 이용권과 같은 일부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제한시키는 한편,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에 관해선 이용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원 저작권자의 권리와 일반인들의 공적 정보 이용에 관한 권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오광호 2007). 자료의 활용은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합당할 경우에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영국의 영상자원 관리현황을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BFI내에 영상·영화 전문연구도서관과 영상 및 방송자료 아카이빙을 위한 기관을 두어 영상·영화관련 종합포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갖고 있는 BBC 아카이브가 방송자료 아카이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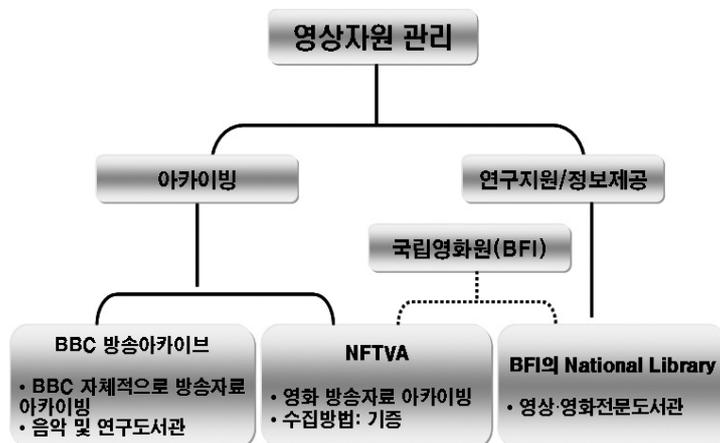
과 정보연구를 위한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상호 보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4. 국내 영상분야 자원관리 개선전략

##### 4.1 영상자원 확충 및 관리의 필요성

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 아카이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은 아카이빙을 단순히 과거의 영상자료 보관 작업으로 인식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영화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한국영화의 전반적인 활성화에 힘입어 영상 아카이빙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 및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이를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영상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투자에 비해 그 수익이 매우 높다. 영화의 경우 초기 제작비용은 높을 수 있지



〈그림 2〉 영국의 영상자원 수집·관리현황

만 제작된 후 복제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라이언 킹(1993년 제작)은 4,000만 달러의 제작비로 10억 달러 이상의 흥행수입을 올렸으며, 1998년에 제작된 '타이타닉'은 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수치의 제작비가 투입되어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 32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창출하였다. 영상산업의 수익이 높은 이유는 정보패키지화에 있다. 영화는 제작되어 극장에서 수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제작되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된다. 즉, one-source-multi-use산업으로 이를 윈도우 효과라 한다. 영화의 이러한 특성이 관련 미디어산업과 수평 및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극장 상영을 미친 영화는 비디오, DVD, 공중파 TV, 케이블 TV, 위성방송, 캐릭터 산업, 테마파크 등에 부가적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윈도우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양영철 2005).

국내 영상산업을 포함하는 문화산업통계에 의하면 2006년도 매출액이 58조원에 달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06년 국내총생산 850조원에 비교한다면 6.8%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중 영화로만 한정한다면 3조 6천억 원을 차지한다. 한편 2004년 한류효과로 인해 상품, 관광, 영화·방송프로그램 등 3개 부문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총 18.7억 달러이며, 원화로는 2조 1,440억 원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액은 총 1조 4,339억 원으로 2004년 GDP의 0.18%를 상승시켰다. 한류효과로 인한 수출증대효과를 보면 상품부문에서는 조사대상 5개국(중국, 일본, 홍콩, 대만, 태국)에 대한 한류의 수출증대효과는 918백만 달러로 이들 국가에 대한 소비재 총 수출액 12,752백만 달러의 7.2%에 달하였다. 품목별로는 499백만 달러로 전체 한류효과의 64.2%를 점한 전기·전자·기계제품이 최대 수혜품목이었으며 식음료,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의 한류효과도 1억 달러를 상회하였다(한국무역협회 2006).

이처럼 영상산업은 국가 전체산업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 외에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 파생효과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특성을 지닌 영상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상자원의 체계적인 수집, 보존·관리 및 제공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영상산업지원을 위한 영상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영상산업이 고부가가치 산

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상분야 자료수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정책이 부재하다. 한국영상예술원이 국내에서 제작되는 필름과 시나리오를 납본을 통해 수집, 보존 관리하고 있지만, 방송자료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기관간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영상산업 관련 종사자, 학술연구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술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둘째, 우리나라 영상 산업은 제작과 유통이 독과점 형태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다. 기업의 특성은 경제 원리에 따라 수익 위주의 구조를 갖추고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사업이 진행되었다가 폐지되었다가 하는 행태를 되풀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정 한 분야가 발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외국과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구조인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영상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영상산업은 문화와 관련된 산업이다. 영상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잘 나타나야 한다. 한류 열풍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상산업은 대기업 주도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이윤창출구조를 보다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다. 영상산업의 상업성도 중요하지만 독립영화, 창작영화와 같은 예술적인 부분도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영상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내용은 전문화된 관련 분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영상 산업은 다양한 학문의 복합체이다. 특정 교육기관에서 폭 넓고 전문화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기는 역부족이며, 동시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중복적인 요소가 있어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는 선진 외국의 영상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4.2 영상자원 확충 전략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영상자원 수집, 관리, 제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영상분야 자원확보의 체계적인 시스템은 어떤

형태로 가능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외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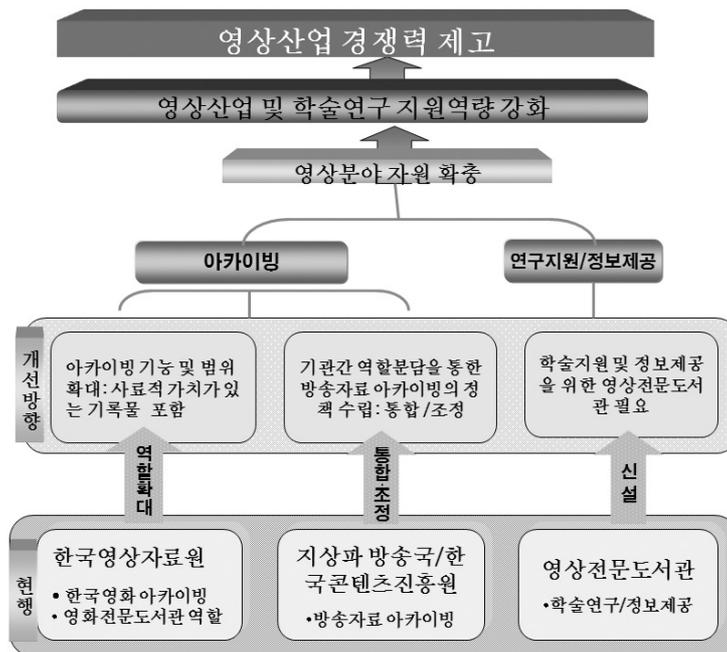
영국과 프랑스 모두에서 영상물아카이빙을 위한 기관과 학술지원을 위한 전문도서관을 갖추고 있다. 한편 국내의 영상자원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영상기록물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한국영상자료원, 방송3사가 존재하고 있는 반면 영상산업 관련종사자, 교수, 연구자, 학생들의 학술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영상 전문도서관은 없다. 또한 방송아카이브는 개별 방송국에서 자사에서 방영된 영상자료만을 보존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료적 가치, 교육적가치, 보존적 가치 등이 있는 일부 영상자료에 대해서만 기록물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다. 방송자료아카이빙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영상자료 보존정책에 대한 합의 없이 개별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료만을 수집하여 보관·보존하고 있다는 것과 수집 보관된 자료가 일부에게만 한정적으로 이용됨으로 인해 자료의 활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상산업전반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정보의 통합적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림 3>은 국내의 영상분야 자원확충에 관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상자원 확보를 크게 아카이빙분야와 연

구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전문도서관으로 구분할 때 영상기록물 아카이빙에 대해서는 기관간 역할분담을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먼저,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영화의 국가자원화를 위해 한국영화아카이빙에 대한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필름 및 시나리오의 의무제출제도에 의한 소극적 방법으로 극영화중심의 필름과 시나리오만 수집할 것이 아니라 자료적 가치가있는 파생기록물, 즉 스틸자료, 포스터, 홍보 및 마케팅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자료의 아카이빙이다. 현재 방송자료 아카이빙은 지상과방송 3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방송사는 방송사대로 자사 프로그램만을 아카이브 하는 반면, 진흥원은 교육적가치, 사료적가치, 작품의 가치 등에 의해 영상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데 방송3사와 중복되는 영상물이 대부분이다. 방송산업에 대한 진입문턱이 낮아지면서 케이블 방송과 지역민방이 무수히 존재하지만 이들 방송국에서 방송한 영상기록물에 대한 보존정책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방송3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자료의 국가자원화를 위해 역할조정이 필요하다. 방송3사가 수집하여 보관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콘텐츠진흥원은 중요한 영상자료 중심으로 최소수준에서 수집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영상기록물을 수집할 수 없는



<그림 3> 우리나라 영상분야 자원 확충 방안

케이블 방송이나 지역민방에서 방영된 중요 영상기록물에 대한 수집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방송영상자료 기록물 수집 및 보존과 관련하여서는 기관간 조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방송자료 통합수집·관리·보존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와 방송자료의 국가자원화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아카이빙에 대한 기관의 범위와 책임, 연계방안, 접근권 공유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영상자원아카이빙의 문제는 기존의 기관들 간의 역할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지만, 영화·영상관련 연구자, 창작자, 학생 등 관련종사자들의 연구활동 혹은 창작활동 지원시스템은 새로이 구축되어야 한다. 영상자료의 아카이빙만으론 영상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도출할 수 없다. 영상산업의 경쟁력은 기술보다는 콘텐츠에 좌우되므로 국내의 영상자료의 체계적 수집을 통한 연구 및 학술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자료 확보 없이는 영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영상전문도서관의 역할은 영상관련 학술정보의 지속적 확충, 자원공유 확대, 영상관련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지원서비스, 영상산업 관련 기관과의 연계강화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 등이 될 것이다.

영상분야 자원확충의 전략적 방안의 효과는 첫째 자료의 특성별 수집을 통한 영상분야 자료의 군집화가 가능하게 되며 둘째, 영상 관련자료의 국가자원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셋째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조직적 관리를 통한 소장가치 극대화 및 활용가치 확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료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보존환경 제공 및 보존처리, 매체전환을 통해 자료의 영구적 보존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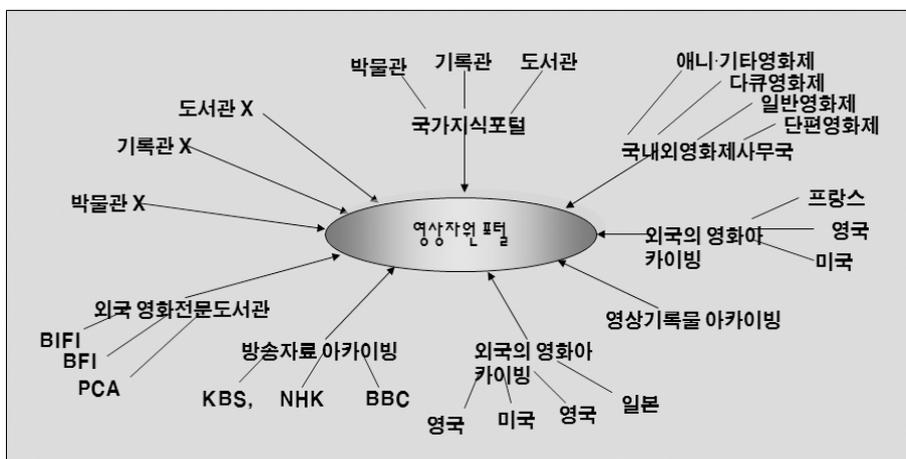
하게 된다.

영상분야 자원의 망라적 확충이 가능해지면 영상산업 및 학술연구지원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영상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영상관련 전문인 양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영상분야의 자원확보는 영상자원 포털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영상자원 포털은 국가지식포털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지식정보화에 기여하게 되고, 영상자원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그림 4 참조).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쟁력 있는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영상자원을 효과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영상자원 확충의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국내 영상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영상자원 관리 현황을 벤치마킹하여 영상자원의 전략적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상자원의 확충방안으로 제시한 방법은 크게 영상기록물과 자료적 가치가 있는 파생기록물 등을 위한 아카이빙을 담당할 기관과 영상분야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학술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영상자료의 아카이빙은 크게 영화자료 아카이빙과 방송자료 아카이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화자료는 이미 한국영상예술원에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방송자료 아카이빙은 지상파 방송3사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림 4〉 영상자원 확보를 위한 게이트웨이

따라서 영상자료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한국영상자료원의 역할조정과 방송자료 아카이빙을 위한 역할조정 및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 및 접근권 확보를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아카이브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필름, 시나리오에 주로 국한되었던 자료수집을 보다 확대하여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 모두를 수집하여 한국영화의 국가자원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방송자료 아카이브를 위해서는 산발적으로 혹은 방송사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아카이빙을 국가자원화의 차원에서 역할분담, 책임구축 등의 방법을 통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송자료 아카이빙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영상관련종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서비스 및 학술연구지원 및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영상전문도서관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상산업의 발전은 아카이빙을 통해서만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전문자료의 확보를 통한 정보제공, 학술 및 연구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영상분야의 포털자원 확보는 영상기록물, 사료적 혹은 자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빙을 수행하는 기관의 확보와 정보제공 및 학술연구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의 확보를 통해 가능하게 된다.

### 【참고 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국립중앙도서관 영상·해양·물류분야 분관(부산)〈가칭〉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남인영. 2006. 영화문화다양성의 측면에서 본 한국영화와 아카이빙의 현안. 『영화연구』, 29: 71-93.
- 문화체육관광부. 2007. 『문화산업백서』. 서울: 문화체육부.
- 박정수. 2008. 한국 방송영상산업의 경쟁력과 과제. 『KIET 산업경제』, 14-24.
- 신호균, 김준우. 2008. 기독교포탈의 고객센터 차별화를 위한 비교분석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6(1): 85-104.
- 양영철. 2005. 『영화산업』. 파주: 집문당.
- 오광호. 2007. 『방송기록물 운영관리체제의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 장유미. 2001. 『디지털시대의 영상콘텐츠의 활용방안: 영상아카이브 운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한국무역협회. 2006. 『한류의 경제적 효과분석』. 서울: 한국무역협회.
- 한국영상자료원. [online] [cited 2009.9]. <<http://www.koreafilm.or.kr/main/>>.
- 홍정의. 2006. 현 사진학계 지형에서 본 사진포털사이트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현대사진영상학회 논문집』, 9: 55-73.
- 홍준규. 2008. 『한국의 영상기록물 관리 체계화 방안』. 기록관리학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 Archives Françaises du film. [online] [cited 2009.8]. <[http://www.cnc-aff.fr/internet\\_cnc/Home.aspx?Menu=MNU\\_ACCUEIL](http://www.cnc-aff.fr/internet_cnc/Home.aspx?Menu=MNU_ACCUEIL)>.
- BBC Creative Archive. [online] [cited 2009.9]. <<http://www.bbc.co.uk/creativearchive/>>.
- BFI National Archive. [online] [cited 2009.8]. <<http://www.bfi.org.uk/nftva/>>.
- BIFI. [online] [cited 2009.8]. <<http://www.bifi.fr/public/index.php>>.
- Eckes, Georg and Segbert. 2009. Monica. European Film Gateway: A Portal for Film Archives [online] [cited 2009.8]. <<http://www.ariadne.ac.uk/issue58/eckes-segbert>>.
- INA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cited 2009.8]. <<http://www.ina.fr/>>.